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7집 (2002)  
pp. 83-101

한국어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하여—

노마 히데키 [野間 秀樹]  
(동경외국어대학)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 한국어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하여—

노마 히데키 [野間 秀樹]

(동경외국어대학)

## 1. 한국어교육과 모어

### 1.1. 한국어교육의 제상과 모어의 전이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음운론, 어휘론, 문법론, 담화/텍스트론 각각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들 다양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학습자의 모어(native language)인 일본어와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인 한국어의 대조를 통하여 선명하게 부각된다. 다른 언어의 경우는 어떻게 간에 일본어 모어화자의 한국어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습득하기 쉬운 사항인가 그렇지 않은 사항인가는 기본적으로 모어인 일본어의 전이(transfer)에 의해서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음운론에서 담화/텍스트론에 이르는 모든 면에 관철되는 현상으로 소위 중간언어(interlanguage) 가설도 필요 없을 만큼 모어인 일본어와 학습대상인 한국어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음운론적인 면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소위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와 대조적으로 어휘론에서는 한자어의 존재 등이, 문법론에서는 형태론적으로는 소위 조사의 양상, 용언복합체의 구조 등이, 통사론적으로는 어순의 현저한 유사성 등이 일본어화자에게는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로서 유리하게 기능한다. 어휘론이나 문법론뿐만 아니라 담화/텍스트론에서의

---

소위 화용론적 전이(pragmatic transfer)에 관해서도 오용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부정적 전이 즉 모어인 일본어의 간섭(interference)에 의한 것이다. 여러 가지 오용 중 소위 언어내 오용(intralingual error)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줄어들지만 언어간 오용(interlingual error)은 고급학습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일본어 간섭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한다.

## 1.2. 한국내의 한국어교육과 모어별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오용에 관한 분석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있어 왔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오용분석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어를 배제하고서는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단순한 오용의 빈도분석, 경향의 파악에 그쳐 버린다는 점에 있다.

한국 내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 그렇듯이 다민족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재, 같은 언어로 배우는 학습 형태는 한국어에 의한 다민족 교류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하자면 한국어가 lingua franca의 기능을 한다는 언어사용의 중요한 국면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학습의 동기 각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의미를 학습자에게 재확인 시켜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제외하고 언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적어도 모어별로 한국어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다.

## 1.3. 한국어와 모어의 대조연구가 지탱하는 한국어교육으로

오용분석이 모어별의 분석이 아닌 경우, 그 오용분석은 오용의 빈도 분석, 경향의 파악에 그치기 쉽고 왜 그러한 오용이 생기느냐는 원인의 해명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의 모어를 아는 연구자가 보면 쉽게 오용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화자

의 단순한 오용의 경향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오용이 생기기 쉬운가를 밝히는 것이며 거기서 밝혀진 결과를 실제 한국어교육의 현장에 환원시키는 데에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야만이 한국어 교육은 참된 진전을 볼 것이다.

## 2. 전통적인 문법론에서 새로운 문법론으로 = 언어장(言語場)에서의 문법으로

### 2.1. 문장(sentence)의 질곡

문법론은 흔히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러한 문법론의 기본적인 단위가 문장(sentence)임은 전통적으로 암묵리에 승인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이라는 단위를 넘어선 사항은 담화(discourse)나 텍스트(text)라는 단위로 다루어지거나 혹은 화용론(pragmatics)이라는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본고에서는 교육의 바탕이 되는 문법론도 전통적인 문법론의 그러한 틀 안에서 벗어나 보고자 한다.

본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의 문장(sentence) 내부에 관한 사항을 문법론에서 다루고, 하나의 문장을 넘은 사항은 화용론에서 취급한다는 사고방식을 다름 아닌 한국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재고해 보자는 데에 있다. 특히 문장(의 생성)을 문법의 최상위에 위치시키고 있는 문법론으로는 문법적인 형태의 의미나 기능조차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2.2. 언어장과 법

예를 들어, 담화/텍스트(discourse/text)라는 관점 없이 문장의 레벨에서만 논의하였던 1980년대 이전의 문법론으로는, “비가 오겠다.”와 “비가

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문장의 사용상의 차이를 학습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다.<sup>1)</sup> 이 두 가지 문장은 양쪽 다 소위 문법적으로는 적합한 문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문장이 도대체 어떤 언어장(言語場 linguistic field)<sup>2)</sup>에서 사용되는가, 즉 실제로는 어떤 담화/텍스트 안에 나타나느냐는 점을 따져 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범(mood)의 차이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언어장이란 언어를 실제로 주고받는 자리, 시공간(時空間)을 말한다. 담화/텍스트는 언제나 그러한 언어장 안에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장 안에 또 다른 언어장을 구성한다. 위의 두 문장은 어떤 특정한 언어장, 특정한 담화/텍스트가 주어지면 그 많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문법적인 형태는 많은 적든 간에 하나의 문장을 넘어선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법형태를 하나의 문장 안에서만 본다거나 문장 내부에서의 기능과 외부에서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2.3. 격(case)과 조사의 선택도 이미 문장을 넘어서는 계기를 내포한다

문법적인 형태 중에서 예를 들면 격(case)에 관한 문제는 어쩌면 어디까지나 문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책으로 읽다”, “책을 읽다” -- 이런 선택 그 자체는 문장 내부, 아니면 동사와 목적어와의 관계 즉 단어결합에서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 것이며 또 기존의 문법론에서는 그러한 취급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다”에 대해서 소위 보조사 “-는/-은”을 사용한 “책은 읽다”를 생각하자마자 그러한 선택에는 문장을 넘은 조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책은”이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1) “하겠다”와 “할 것이다”의 구별 및 그 연구사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88, 1990a, 2002a : 109-189) 참조.

2) 언어장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0b : 2-4, 2002a : 263-264), 가메이[龜井孝]의 (1996) 참조.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장이라는 단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임에 틀림 없다. 아니, “책은 읽다”는 소위 격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비난은 온당한 비난이 못 된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책은”을 선택한다는 것은 “책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라는 선택은 “책은 읽다”는 비격조사에 의한 구성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소위 격조사의 <사용> 그 자체가 바로 <한 문장을 넘어선 선택>이라는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2.4. 통사론(syntax)에서 초통사론(supra-syntax)으로

이리하여 한국어교육은 여태까지 단순히 적절한 문장의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문장을 넘어선 기능에 대한 고찰 없이는 성립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 관여하는 문법을 통사론(syntax)이라 부른다면 문장을 구성하면서 문장을 초월한 이러한 기능에 관여하는 문법론은 초통사론(supra-syntax)이라고 할 문법이다. 즉 이것은 문장 내부에 있는 요소가 문장 내부에서 당해 문장을 구성하면서 문장 내부뿐만 아니라 문장을 넘어선 여러 조건과의 연관을 보이는 양상을 기술할 분야인 것이다. 문장을 넘어선 기능은 담화/텍스트론적인 조건과 관여하는 기능이며 언어장과 본질적인 관계를 가진 기능이다. 전통적인 통사론과 형태론을 문법론이라 부른다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초문법론적(supra-grammatical)인 기능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기존의 문법론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문법형태는 어떤 언어장에서 사용되며 담화/텍스트 속에서 어떠한 구실을 하는가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a priori한 단독의 문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모든 문장은 담화/텍스트 내의 존재임을 재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어가 가지는 문화적인 배경, 즉 문화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교육 역시 문장의 이러한 존재양식을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까지 담화/텍스트론적인 혹은 화용론적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항들이 사실은 소위 “문법”론 내부에서도 다루어져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말하자면 언어장 속의 언어라는 관점에서의 문법론의 담화/텍스트론적인 재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은 기존의 문법론 안에도 문법론의 이러한 재생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다. 다음 3장에서는 그러한 실마리의 예로서 몇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한국어교육과 그 이론적인 지주로서의 새로운 문법론

#### 3.1. 대우법과 언어장

문법론의 이러한 담화/텍스트론적인 재생은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교육에서의 언어장과의 상관관계를 중시함으로서 실현될 것이다. 단순한 장면 제시나 기능 제시 위주의 교과서를 넘어서서 각 문법 형태에 대한 담화/텍스트론적 성격의 교육, 즉 어떤 언어장에서 그 문법 형태가 사용되는가를 가르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교육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대우법(待遇法)은 지극히 담화/텍스트론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이다. 필경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장면에서 사용하는 형태냐, 즉 어떤 언어장에서 그 형태가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필수적인 것으로서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요점은 이러한 언어장성(言語場性)이라 부를 요소를 대우법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형태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조화, 체계화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3.2. 법과 언어장

예를 들면 “목적법”, “회상법”, “보고법” 등으로 불리는 체험법 “하더

라"형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하더라"형을 만드는 절차 그 자체는 극히 용이하다. 사전형에서 "-다"를 빼고 "-더라"를 붙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더라"형의 용법은 어렵다. 이런 형태를 학습자에게 제시할 때에 단순히 "하더라"형이 쓰인 문장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용법의 습득은 요원하다 할 수 있다. 형태의 제시만으로는 왜, "하더라"형 대신에 "했다"형이나 "했었다"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학습자는 알 수 없다. 거기에는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언어장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 3.3. 인칭구조와 언어장

일반적인 평서법인 "개도 있었어."와 체험법 "개도 있더라."는 양쪽 다 일본어에서는 "anoko-mo itayo."라는 하나의 형태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개도 있더라."는 "개도 있었어."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르다. 체험법은 청자에게는 미지(未知)의 것이리라고 화자가 판단하는 사태를 화자의 기지(既知)의 체험으로서 말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체험법은 언어장과 직접적인 관여를 가지는 문법범주인 인칭구조와 재미있는 상관을 보인다.

인칭과 체험법의 상관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다. "우리가 같이 가니까 개도 거기 있더라."의 "우리"는 반드시 <배타적(排他的 exclusive)인 "우리">, 즉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로밖에 기능하지 않는다. 이것은 체험법 "-더라"와의 공기가 가져다 주는 성격이다. 체험법이 아닌 "우리 같이 가자."의 <포괄적(包括的 inclusive)인 "우리">, 즉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

- |                       |             |
|-----------------------|-------------|
| 우리가 같이 가니까 개도 거기 있더라. | - 배타적인 "우리" |
| 우리 같이 가자.             | - 포괄적인 "우리" |



이런 현상은 같은 복수 일인칭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장을 둘러싼 인칭과 법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대명사의 뜻조차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장에 있어서의 인칭을 둘러싼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문법론에서 문장만을 관찰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법교육에서도 단순히 많은 문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학습되지 않는 것이다. 교과서의 용례 제시도 언어장과의 관련까지 감안해서 엮어야 한다. 언어장에 대한 관심에 기초를 둔, 문법론의 이러한 담화/텍스트론적인 재생은, 일본어 모어화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에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한국어교육 일반에 요청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 3.4. 담화/텍스트 구조에서의 비술어문(非述語文)

한국어의 문장은 술어(predicate)로 통합(integrate)되는 술어문(predicate sentence)과 술어로 통합되지 않는 비술어문(non-predicate sentence)이 있다.<sup>3)</sup> 비술어문으로는 “정말로 다시 찾고 싶어 널!”(이현도)와 같은 소위 도치(inversion) 또는 전치법(轉置法 hyperbaton)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 빛 (김소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안치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술어문은 뭔가 특수한 구조, 예외적인 구조가 아니라 한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의 지극히 일반적인 존재양식이라는 데에 있다. 심지어는 관형사형으로 끝나는 다음과 같은 예까지 나타난다:

3) 술어문과 비술어문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6c : 138-139, 2002a : 23-24) 참조.

나는 그대의 영원한... (서태지)

비술어문은 “출입금지”, “금연”, “천천히”와 같은 표지판, “무정”, “쉬리”, “팔월의 크리스마스”, “슬픔이여, 안녕!”과 같은 서명, 제목류, 광고문 등, 문체적으로도 회화체 문장체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명이나 광고문은 언어화된 형태가 그 텍스트 앞뒤에 없다뿐이지 절대로 홀로 서 있는 “고립된” 문장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언어장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아주 “짧은” 텍스트일 뿐이다.

이러한 비술어문은 실제 담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오게 된 동기.”

“술 한 잔 하구서 수업 들어가구.”-“오늘도 <웃음>” 4)

한 발화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고 다른 발화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부연한 것이다. 위와 같은 비술어문은 무엇인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충분한 완성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게 된 동기를 얘기하려고 그랬지.”나 “오늘도 술 한 잔 하구서 수업 들어가구.” 등의 “생략”이라는 설명은 단지 위의 문장을 그렇게 “해석” 내지는 “보충”할 수도 있다는 잉여적이고 자의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출발점과 귀착지를 혼동한 조작이다. 이런 비술어문은 담화 안에 들어갔으므로 결코 “원래 있었던” 요소들이 빠진 것이 아니다. 사고의 순서는 역전되어야 한다. 이 문장들은 원래 담화 안에 이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며 다른 요소는 필요가 없으므로 발화의 형태를 이루지 않았을 뿐이다. 환언한다면, 원래 “완전한” 문장이 미리 존재하고 있고 그 문장이 나중에 각각의 담화/텍스트

4) 이들 예문은 金珍娥(2002:81)의 실제 담화의 예에서 인용. 동 논문에서는 “술부(述部)가 없는 발화”라는 명칭으로 스피치 레벨 시프트(speech level shift)에 있어서의 비술어문의 중요한 기능들이 제시되어 있다. 소위 대우법은 용인의 대우법 어미만이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우법 이외의 여러 요소에 의해서도 지탱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대우법 연구의 틀에 제검토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장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이러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안에 들어갈 때에 요소가 “생략”이나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장은 “원래” 어떤 언어장을 기초로 하는 담화/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문장은 거기서 추출된 단위인 것이다. 문장이니 단어니 하는 단위는 실제적인 존재인 담화/텍스트 안에서 추출된, 어디까지나 추상화된 단위인 것이다.

문장의 존재양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술어문에 대한 위와 같은 시각은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문법론을 개척해나갈 좋은 기초가 될 것이다.

#### 4. 한국어-일본어 간의 문법의 비대칭구조(非對稱構造)에 관한 철저한 연구와 교육

##### 4.1.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대칭구조

위에서 논의한 문법론의 재생을 한국어 문법교육의 하나의 이론적인 지주라 한다면, 또 하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언어사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디가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며 어디가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루는가를 철저하게 밝힘과 동시에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대칭구조(asymmetric structure)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하는 데에 있다. 형태상에 나타난 비대칭구조를 철저하게 해명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은 한일 대조언어학의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하다.

##### 4.2. 어휘론에서의 비대칭구조

비대칭구조란 문자 그대로 한일 두 언어가 병행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음성, 음운적으로는 물론 언어음의 항목(item) 그 자체가 다르므로 전면적인 대칭성을 보이게 되는데 어휘론적인 측면에서는 한자

어나 합성어의 구조에서는 평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양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근(近)+처(處) :	kin(近)+syo(所) > kinzyo(近所)
재+작년 > 제작년 :	iti(일)+sakunen(작년) > issakunen(lit : 일작년)
양+배추 > 양배추 :	kyabetu(<영어 : cabbage)

또한, 한국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일본어에 존재해도 그 의미와 용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칭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일본어 “음료수”는 문자 그대로 음료로 사용되는 물이라는 뜻인데 한국어에서는 음식점에서 “음료수는 뭐 하시겠어요?”라는 발화는 물뿐만 아니라 주스류까지 포함 된다는지, 한국어에서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치”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설치”에 해당되는 *setti* (設置)를 사용하지 않고 “*insutooru*”( <영어 : install)라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등 비대칭성을 보이는 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 4.3. 통사구조에서의 비대칭성(非對稱性)

한일 양 언어간의 비대칭성은 전형적으로는 통사구조에서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두 언어는 통사론적인 구조가 아주 흡사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때로는 미묘한, 때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 1) 단어결합에서의 비대칭성

통사구조 중에서 우선 단어결합(러어 : *slovosochetanie*)<sup>5)</sup>의 비대칭성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단어의 차원에서는 거의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존재하여도 단어결합의 단위가 되면 그러한 대응

5) 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해서는 趙義成(1997), 노마[野間秀樹](2002c) 참조.

을 일탈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비대칭구조의 가장 알기 쉬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단어결합에서 격표시의 비대칭성을 보이는 예를 든다.

친구를 만나다 : tomodati-ni au (lit. : 친구에게 만나다)  
한국에 여행을 가다 : kankoku-ni ryokoo-ni yuku  
(lit. : 한국에 여행에 가다)

다음은 단어 선택 그 자체의 비대칭성, 그리고 격표시와 단어 선택의 복합적인 비대칭성을 보이는 예이다:

안경을 쓰다 : megane-o kakeru (lit. : 안경을 걸다)  
전화를 받다 : denwa-ni deru (lit. : 전화에 나오다)

물론 이런 단어결합의 비대칭성에서도 3장에서 논의한 언어장에 관한 통찰은 빠트릴 수 없다.

차를 타다 : kuruma-ni noru (lit. : 차에 타다)  
차에 타다 : kuruma-ni noru (lit. : 차에 타다)

“차를 타다”와 “차에 타다”의 차이는 “차”를 이동의 수단으로서 보느냐 아니면 몸을 두는 장소로 보느냐는 단순한 차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ni”라는 대칭성에 연유되어 일본어 모어화자는 틀리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kuruma-ni noru”=“차를 타다”라는 도식을 견고히 굳힌 학습자는 “차에 타다”의 사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서도 그러한 현상은 나타난다. 위와 같은 차이는 위의 두 가지 구조가 어떤 언어장에서 사용되는가를 미리 담화/텍스트 안에서 제시해 줌으로써 개념적인 오류를 줄일 수 있다.

2) 표현양상의 비대칭성

다음 예는 “누나에 대한 생각을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의 비교이다. “누나 : onecsan”, “생각하다 : kangaeru”와 같이, 단어의 차원에서 언뜻 보기에는 일대일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음과 같이 단순한 단어결합에서조차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 누나 생각을 해요. : (lit. \*onecsan kanga-eo simasu.)
- 누나를 생각해요. : (lit. onecsan-o kangaemasu.)
- (lit. \*누나의 일을 생각해요.) : onecsan-no koto-o kangaemasu.

위의 예처럼 거의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경우, 가능한 표현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언어장 안에서야 비로소 결정될 것이다.<sup>6)</sup> 일찍이 우메다 [梅田博之](1982)도 일본어에서는 “ii tenkida”(lit. : 좋은 날씨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비해 한국어는 “날씨가 좋다.”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런 표현양상의 문제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계량언어학적인 접근 방법<sup>7)</sup>이 큰 힘을 줄 것이다.

단어결합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언어에서 주어진 언어장에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는 양상을 “**표현양상**”이라 부른다면 표현양상에 대한 교육은 비대칭구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일본어와 비대칭적인 문장을 대칭적으로 직역을 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자:

- 6)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의 차이를 논의한 林八龍(1995)에서 제기된 문제를 본격화한 金恩愛(2002)에서는 “누나 생각을 해요.”와 같이 명사, 체언을 지향하는 구조를 “명사지향구조”, “누나를 생각해요.”와 같이 동사, 용언을 지향하는 구조를 “동사지향구조”라 부르고 일본어가 상대적으로 명사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며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동사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함을 논의하였다. 거기서는 본고에서 말하는 비대칭적인 구조 중 일본어에서 명사구조로 나타나는 구조체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동사구조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정식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교육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 7) 한국어에 대한 계량언어학적인 접근은 서상규 편(1999), 서상규·한영균(1999), 남윤진(2000) 등을 비롯 적극적인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ame-no hi-ni atta megane-no ko oboeteru?<sup>28)</sup>  
(lit : 비의 날의 만난 안경의 애 외우고 있어?)  
비 오던 날 만났던 안경 낀 애 기억나?

위와 같은 예는 표현양상에서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 3) 수사의문의 비대칭성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양상의 차이로서 지금까지 거의 거론된 바가 없었으나,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반어(irony) 내지는 수사의문(rhetorical question)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너 이 영화 봤어? - 왜 안 봤겠어? (한석규가 나오는데.)  
(lit. : anta kono eiga mita? - \*doosite minakattadarooka?)

“왜 안 봤겠어?”를 일본어로 직역을 하면 뜻은 추측이 가능한데 아주 기묘한 표현이 된다. 이토록 한국어는 수사의문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비해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이 수사의문 역시 비대칭구조를 보이기 쉬운 한국어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가 기다려지는 바이다.

## 4.4. 담화/텍스트 구조에서의 비술어문(非述語文)의 비대칭성

3.3에서 논의한 비술어문이 담화/텍스트 구조 안에서 보이는 비대칭성도 여기서 확인하자:

밥 먹었어요? - 먹긴요 (너무 바빠서 앓을 시간도 없었는데.)  
(lit. : gohan tabemasita? - \*tabewadesune.)

---

8) 金恩愛(2002)에서 인용.

물론 담화/텍스트 안에서 대칭성을 보이는 비술어문도 많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수사의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 역시 비대칭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실제 담화/텍스트 구조 안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도 문법론 및 문법교육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 4.5. 언어장과 지시어

언어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비대칭성으로서 지시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한국어도 일본어도 지시어는 3 문법 체계를 보인다:

이 : kono  
 그 : sono  
 저 : ano

그런데 특히 비현장적(非現場的)인 지시의 경우에 이 대응관계는 무너지는다:

(지난번의) 그 사람, 기억나?

(konoaidano) ano hito, oboeteru? (lit. : (지난번의) 저 사람, 기억나?)

위와 같은 예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초급 레벨뿐만 아니라 고급 레벨의 학습자에게까지 보이는 언어간 오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지시어 문제는 학습자의 오용 빈도도 높으므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왔으며, 한일대조연구에서도 즐겨 논의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의 비현장적인 지시에는 한국어에서는 “그”를 사용하지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요는 현장성, 즉 언어장을 둘러싼 구조에 대한 이해와



숙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장에 대한 통찰과 그 언어장에 의거한 담화/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한국어교육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좋은 예라 하겠다.

## 5. 마무리

이상, 1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모어의 중요성을, 2장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문법론 즉 언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담화/텍스트론적인 문법론의 재생을 논의했고, 3장에서는 그러한 재생의 이론적인 실마리로서 언어장 및 담화/텍스트론과 문법론의 상관 양상을, 4장에서는 실천적인 접근법으로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대칭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고의 초통사론과 비대칭성에 관한 논의는 극히 한정된 것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법론과 문법교육에서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문법연구의 관점에서도 문장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벗어나기 위한 계기는 현재의 한국어연구와 한국어교육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러한 계기를 확실히 잡고 새로운 문법론과 한국어교육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메이[龜井孝], 고노[河野六郎], 지노[千野榮一]編(1996), “言語學大辭典 第6卷 術語編” 東京:三省堂
- 간노[菅野裕臣](1988a),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한글” 제201, 202호. 서울:한글학회
- 간노[菅野裕臣](1991),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새국어생활” 1-2. 서울:국립국어연구원

- 경기대학교(1996), '외국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전망' 제3회 동아시아 국제학술 심포지움 발표요지집
- 고영근 외(2002), "문법과 텍스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恩愛(2002), '日本語の名詞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國語の動詞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 天理: 第53回 朝鮮學會 發表要旨
- 김중섭(1999),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金珍娥(2002),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談話ストラテジーとして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 "朝鮮學報" 第183輯. 天理: 朝鮮學會
- 權在淑(1995), "これからの朝鮮語" 東京: 三修社
-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남윤진(2000), "현대국어의 조사의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1988) '<하겠다>의 연구 — 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 "朝鮮學報" 第129輯. 天理: 朝鮮學報
- 노마[野間秀樹](1990a), '<할것이다>의 연구 — 再び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 "朝鮮學報" 第134輯. 天理: 朝鮮學報
- 노마[野間秀樹](1990b), '朝鮮語의 名詞分類 — 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朝鮮學報" 第135輯. 天理: 朝鮮學報
- 노마[野間秀樹](1995),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려운가 —' "말글생활" 제3호. 서울: 말글社.
- 노마[野間秀樹](1996a), '현대한국어의 대우법 체계' "말" 제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노마[野間秀樹](1996b),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란 - 일본어화자의 경우' "語學研究所論集" 제1호. 도쿄: 동경외국어대학 어학연구소
- 노마[野間秀樹](1996c),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언어학" 제19호. 서울: 한국언어학회
- 노마[野間秀樹](2000), "至福の朝鮮語" 東京: 朝日出版社
- 노마[野間秀樹](2001a), '한국어 모어화자의 일본어 피치악센트 교육을 위하여' "韓日語文論叢" 梅田博之教授 古稀記念論叢 刊行委員會編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2001b),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제16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요지"
- 노마[野間秀樹](2002a),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2002b), '일본어권 한국어 교사의 기본조건' "국어교육연구" 제9집.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노마[野間秀樹](2002c), '한국어 단어결합론의 심화를 위하여' "國語學" 제39집. 서울 : 國語學會
- 노마[野間秀樹](2003), '일본어 모어화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초 학습어휘 선정과 제시 방법' "한국어 교육과 학습 사전" 서상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서울 : 한국문화사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서울 : 대교출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1), "국어교육연구" 제8집.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서정수(1996), "국어문법(수정증보판)"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 서상규 편(1999), "언어 정보의 탐구 1" 서울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서울 : 태학사
- 任瑚彬·洪璟杓·張淑仁(1989), "外國人のための韓國語文法" 서울 : 延世大學校出版部
- 우메다[梅田博之](1982), '韓國語と日本語—對照研究の問題點' "日本語教育" 48號 東京 : 日本語教育學會
- 우메다[梅田博之](1987),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語研究' "第1回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인천 : 仁荷大學校 韓國學研究所
- 윤여탁(2001), '外國人を 對象으로 한 韓國語 教育의 諸問題' "국어교육연구" 제8집.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토[伊藤英人](1999),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동경외국어대학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 :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 한국문화사
- 林八龍(1995),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表現構造の對照考察—日本語の名詞表現と韓國語の動詞表現を中心として' "宮地裕·敦子先生古希記念論集 日本語の研究" 東京 : 明治書院
- 趙義成(1997), '현대 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朝鮮學報" 第163輯. 天理 : 朝鮮學會
- 후지모토[藤本幸夫](1996),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 현황' "제5회 국제 한국어 학술 대회 발표요지" 서울 : 한글학회
- ハンブル[한글]能力檢定試驗出題基準檢討委員會(油谷幸利, 朴宰秀, 野間秀樹,

- 曹喜澈, 吳文淑, 金珍娥)共編著(2002), “ハングル學習の手引き”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 黃燦鎬·李季順·張奭鎭·李吉鹿(1988), “韓日語 對照分析” 서울: 明志出版社
- 후지이[藤井幸之助](1993), ‘日本語母語話者のための朝鮮語學習用教材·關連圖書 目錄’ “阪南論集” 第29卷 第1號. 松原: 阪南大學學會
- Kanno, H, et al.(1985), Korean Studies in Japan. *Korea Journal*. Vol.25. No.12.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oul

野間秀樹(Noma Hideki)

日本 183-8534 東京都府中市朝日町3-11-1

東京外國語大學 大學院

noma@tufs.ac.jp

<http://www.tufs.ac.jp/ts/personal/nomahideki/index.shtml>

---